

もがみよしあき

ほんじょうみつしげ

혼조성은 야마가타 다이묘(넓은 영지를 가진 무사)인 모가미 요시아키(最上 義光)의 중신인 혼조 미쓰시게(本城 満茂)의 거성으로 게이초 18년(161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모가미 씨의 개역 후 혼다 마사즈미(本多 正純)를 거쳐 히타치후츄(현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에서 온 로쿠고 마사노리(六郷 政乗)가 겐나 9년(1623년)에 입부한 이후 혼조성은 로쿠고 씨의 거성이 되었고 폐번이 된 메이지 4년(1871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성은 조카이 산기슭에 연결된 언덕 북쪽 끝에 있는 오자키 산을 본성과 성곽으로 삼았습니다. 히라야마성은 그 북동쪽 기슭의 토루로 만들어진 세번째 성곽으로 「오자키성」「쓰루마이성」으로도 칭하는 명성입니다.

혼조 씨 시대에는 현재의 나카다테마치 부근까지 외해자를 정비해 성역으로 사용했지만 모가미 씨의 개역으로 인해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겐나 9년에 입부한 로쿠고 씨는 성과 조카마치를 축소시키고 현재의 혼조공원과 시청 부근을 성역으로 삼았습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본성에 있던 성주의 거관과 번청을 세번째 성곽(혼조공원 광장)으로 옮겨 정무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카마치는 성과 일체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부케마치(무가마을)는 성을 둘러싸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에 근접하는 현재의 사쿠라코지, 오모테오자키마치, 우라오자키마치에 중신 저택이 있었고 오사와 강 동안에서 현재의 다니야마코지와 미쿠라마치에 걸쳐 아시가루마치 (최하급 무사 마을)이 있었습니다. 또 성 북서쪽에 있는 다이몬(大 門, 성 통행을 위하여 만든 출입구)으로 조닌마치가 부케마치와 구분되어 현재의 가미요코마치, 나카요코마치 부근 일대에서 오마치, 사카나마치, 히키지마치, 후루유키마치 등에 걸쳐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카마치 특유의 엇갈림이 있는 십자로와 정자로, 크랭크 모양의 갈고리형 도로, 단자쿠형(직사각형)의 저택 분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료시마치(사냥꾼마을), 가지마치(대장간마을), 오케야마치(통장수마을) 등 장인마을 이름에도 조카마치 시대의 지명이 남아있어 현재 시가지는 조카마치를 토대로 성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